

# 참된 교회와 복음전도

최정균 목사(갈보리교회)

제임스 패커(James I. Packer)에 따르면 전도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현대의 전도 방식이요 다른 하나는 청교도 전도 방식이다...현대의 전도자들은 자신의 교파적 소속과 상관없이 거의 누구나 전도 설교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할 것을 촉구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요청함으로 구원이 개인의 결단이나 결심에 달린 것 같은 인상을 준다...이러한 현대적 전도 방식의 원조는, 패커에 의하면, 19세기 초의 찰스 피니다. 현대의 복음 전도는 피니의 방식을 따른 것이요, 피니의 인간론의 산물이다. '오늘날 수많은 복음 전도를 특징짓는 것은 수정되고 응용된 피니의 방법이다.' 그런데 패커는 피니가 '명백한 펠라기안 주의자'라고 단언한다. 피니는 '일단 사람이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확신하기만 하면 누구나 타고난 능력에 의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힘주어 선언했기 때문이었다...(이와는 상대적으로) 청교도 교리에 의하면 타락한 인간은 자기 힘으로 회개하거나 믿을 수 없다고 패커는 지적한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 없이 인간은 영적으로 선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 때에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때 받을 수 있을 뿐 스스로 가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로이드 존스가 지적했듯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다'는 말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믿기로 '결심'할 수 없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나 로이드 존스 같은 칼빈주의자들은 찰스 피니의 전도 방식을 비판한다. 피니가 구원을 인간 의지의 결단에 달린 것으로 오해했다는 것이다.<sup>1)</sup>

오늘날의 교회는 현대적 복음전도 유형에 익숙해 있어서, 오히려 성경적이며 청교도적인 복음전도 유형은 생소하게 여기고, 거의 복음전도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복음전도가 이렇게 변질된 원인은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인간의 탐욕과 무지, 그리고 철학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전도의 본질을 끊임없이 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 1. 부흥주의(Revivalism)의 복음전도

교회사에서 발생한 모든 참된 부흥<sup>2)</sup>은 특별한 수단이나 도구가 사용되지 않고, '오래전부터 해오던 평범하고 일상적인 기도와 말씀 사역'에 비상하게 임하였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했으며, 똑같은 능력을 행사했지만, 그 결과는 놀랍게도 다른 것이었다.'<sup>3)</sup> 지리적으로나 숫자적으로 광범위한 규모로 거의 25년간이나 지속되었던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은 전혀 상상하거나 예상할 수 없는 때에 급작스럽게 시작된 것이었다. 사람의 편에서는 도무지 그 출처나 근원을 찾아볼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것이었다. 인위적인 조작이 부재했고 통제가 불가능한 '임의로 부는 바람'(요3:8)과 같은 것이었다.

1) 양낙홍, 『조나단 에드워즈 생애와 사상』,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3), 251-253.

2) 이안 머리(Iain H. Murray)는 그 시기(1기:1620-1858; 2기:1858-1958; 3기:1958-현재)에 따라 교회의 부흥에 대한 견해가 변천해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1기에는 부흥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어난다는 부흥관이 유일한 견해였으나, 2기에는 부흥이 인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부흥주의가 등장했으며, 3기에는 부흥(Revival)과 부흥주의(Revivalism)를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1858년 이전의 부흥관이 바른 성경적 부흥관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이안 머리, 『부흥과 부흥주의』, 신호섭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5), 19-27 참조).

3) 이안 머리, 『부흥과 부흥주의』, 207.

1800년에는 미국 켄터키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감정주의와 갑작스러운 쓰러짐, 경련, 춤과 같은 육체적 현상들을 동반하는 종교적 흥분과 광신적 현상들이 동반되었다.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간주하였고, 그것이 장려될수록 육체적 현상들은 더욱 증가하였다. 이러한 종교적 흥분들은 ‘신학적 오류’와 ‘교회의 분리’와 ‘종교적인 광신주의’와 같은 해악과 병폐를 가져왔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리교를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들을 ‘진정한 회심과 신앙의 참된 특징이자 표준’인 것처럼 간주해버렸다는 것이다. 1800년 이후, 장로교와 침례교는 참된 부흥과 광신적 감정주의에 대한 성경적인 분별에 따라 이런 대중 집회를 포기했던 반면, 감리교는 그런 현상들을 더욱 고무하며 촉발하기 위하여 대중적인 집회를 계속해서 열었던 것이다.

감리교는 켄터키에서 발생한 이런 교훈과 현상을 정기적인 것으로 동력화했고 일상화했다. 거대한 대중 집회의 조직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부분이라고 간주하고 그런 주장을 퍼뜨리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수 일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대한 숫자와 군중의 찬양으로 격앙되고 고무된 감정이 어떤 특정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 . . 그 어떤 심리학적 지식보다도 더욱 성경을 강조했던 칼빈주의자들은 신약성경을 통해, 어떤 전문적 기술이나 방법이 회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을 배격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 외에는 죄인을 회개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은 전혀 없다고 믿은 것이다. 따라서 칼빈주의자들은 특정한 기술이나 방법의 사용이 오히려 참된 성경적인 회심의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4)</sup>

거기서 더 나아가 1800년 이전부터 이미 미국 감리교회에서 유행하던, 회심자의 숫자를 세는 시도가 도입되었다. 이제 이런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현상들은 회심자의 숫자를 파악하는 시금적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것은 대중 집회에서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강단 초청’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차츰 이것은 회심과 혼동을 일으키게 된다.

‘사람에게는 회개하거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알미니안 사상은 대중들에게 논리적으로 보이는 것이었으므로 보다 대중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계속되는 대중 집회를 통한 감리교의 비약적인 외적 성장은 칼빈주의보다 알미니안주의가 복음전도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되었으며, 그 결과로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전통적인 신앙을 버리고 알미니안의 관습을 무비판적으로 따르게 되었다. 이렇듯 감리교의 알미니안주의 신학은 필연적으로 야외집회와 강단초청이라는 복음전도 방식을 낳았으며, 이 새로운 부흥 기술은 견잡을 수 없이 확산되기에 이르렀고, 소위 ‘부흥주의’(Revivalism)가 탄생한 것이다.

찰스 피니(Charles Finney)는 부흥주의 확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서 부흥기술의 창시자는 아니었지만 이 새로운 수단과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피니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 놀라운 결과들은 주변의 의심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방법들을 더욱 신뢰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히려 새로운 방법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흥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배척되었다.

부흥주의의 문제는 광신적 감정이나 육체적인 현상들, 혹은 강단으로 나아오는 것을 회심과 동일시함으로써, 이런 현상들을 의도적으로 유발시키기 위해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인위적인 방법들’을 사용한다는 데 있다. 이것은 수많은 거짓 회심자를 양산함으로써 사람들을 기만하고, 참된 부흥조차도 불신하게 만들었다. 피니는 회심을 특별한 수단들을 통해 사람의 내부를 자극함으로써, 죄인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결단으로 인생을 지배하는 목적을 바꾸는 노력

4) 이안 머리, 『부흥과 부흥주의』, 284-285.

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찰스 피니에 따르면 “사람의 잠들어 있는 ‘도덕적 능력들’을 격발시키기만 한다면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결단과 헌신을 위해 설교하는 것은 언제나 복음전도자의 일이며 의무이다.”<sup>5)</sup>

피니는 ‘모든 사람이 회심하는 데 필요한 것은 본성의 변화가 아니라 의지의 결정’<sup>6)</sup>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중생이란 인간의 의지적인 선택이며, 순종에 다름 아니었다. ‘중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시작일 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를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길이다. 한 개인이 하나님을 향한 실제적인 순종을 선택할 바로 그 때,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sup>7)</sup> 그에게 있어서 ‘회심해야 할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흥분시키는 것은 회심시키는 데 필수적인 일’<sup>8)</sup>이었으며, 따라서 감정적인 흥분을 유발하는 수단들은 복음전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었다.

피니는 회심에 있어서의 성령의 모든 역사를 도덕적 설득이라는 점으로 이해하였다. 즉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반항적 무기를 버리고 하나님께 굴복해야 하는 이유를 성령께서 분명히 나타내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언제나 이 설득을 거부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죄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옥에 갈 수 있다. 그러나 이 설득이 강하면 강할수록 저항을 꺾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에 진리가 부딪히는 힘을 증가시키는 모든 수단-복음 전도 집회에서 가장 열광적인 흥분, 가장 가슴이 미어질 듯한 감격, 가장 신경을 자극시키는 동요가 완전히 정상이라는 것이다.<sup>9)</sup>

그러나, 피니의 전도는 수많은 가시적인 결과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없다. 장기적으로 볼 때, 피니의 회심자들은 대부분 타락하였으며, 피니 시대 이후에도 이런 방법들에 의해 결단한 사람들 역시 그러했기 때문이다. 왜곡된 복음에 기반 된 피니의 부흥 기술은 많은 거짓 회심자들을 양산하였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회심을 조작하게 될 때에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듯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실패의 쓰라린 결과와 함께 감당할 수 없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피니의 부흥주의는 왜곡된 신학에 의해 비성경적인 복음전도 수단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의 교회사에서 지속적으로 변질된 복음전도가 전통으로 정착되고 당연시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2. 신복음주의(New Evangelism)의 복음전도

슐라이어마허는 ‘계몽주의(Aufklärung)’라고 불렀던 불신앙의 시대에 독일에서 태어났다.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당시 독일의 대학과 많은 교회는 이성주의의 포로가 되었다. 이들은 인간의 이성만이 진리를 밝히고 증명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했다.<sup>10)</sup>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 우는 슐라이어마허는 종교를 인간 밖의 세계로부터 주어진 계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내부의 느낌, 직관, 경험의 문제로 보았다. 그에게 믿음은 외부에

5) 제임스 패커, 『청교도 사상』,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406.

6) 이안 머리, 『부흥과 부흥주의』, 376.

7) 이안 머리, 『부흥과 부흥주의』, 377 찰스 피니의 글 재인용.

8) 이안 머리, 『부흥과 부흥주의』, 378 재인용.

9) 제임스 패커, 『청교도 사상』, 406.

10) 이안 머리, 『분열된 복음주의』, 김석원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9), 23.

서 주어진 지식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간 내부의 의식과 경험이었다. 진리는 더 이상 외부적인 계시나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경험의 문제이다. 기독교의 계시와 신학을 당시 이성 중심적인 계몽주의 사상에 쫓겨나 인간내부로 도피시킨 셈이다.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는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 장악되었으며 메이첸과 그의 동료들은 1929년 프린스턴을 떠나 필라델피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웠다. 메이첸을 가장 열심히 지지했던 그룹은 ‘근본주의자’들이었는데, 이들은 분리주의적이며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유의지적 결단을 강조하는 아르미니우스주의적 색채를 지녔기 때문에 메이첸은 자신들을 근본주의자로 불리기 꺼려했다.

한편, 웨스트민스터를 졸업한 해롤드 존 오켄가(Harold John Ockenga, 1905-1985)는 복음주의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복음주의가 필요이상으로 활동범위를 좁히는 것에 대해 고민을 품고, 후에 캘리포니아 주 패서디나에 ‘신복음주의(new evangelism)’의 시초가 된 풀러 신학교를 건립하게 된다. 이들은 시작할 때에는 교리적으로 근본주의적인 사조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의 고립을 막는 동시에 외연확장을 위해 보다 포용적이기를 원했다.

빌리 그레이엄의 복음전도 집회를 눈여겨보던 오켄가는,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방어하는 방법이 복음 선포임을 알고 ‘1950년 빌리 그레이엄 전도 협회(BGEA)의 설립에 온 힘을 다했다. 오켄가는 빌리 그레이엄 전도 협회 이사로 참여했고, 빌리 그레이엄은 풀러 신학교 이사가 되었다.’<sup>11)</sup>

그레이엄은 현대주의와 교리적으로 타협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였다. 그러나 영국, 스코틀랜드, 유럽 대륙에 있는 자유주의적 기성 교회들과 폭넓은 협력 속에 집회하는 숫자가 성공적으로 늘어나고 찬사가 쏟아지면서, 그레이엄은 이들의 협력을 처음에는 용인하는 정도였지만, 그 후에는 환영하고 나중에는 요구하는 수준이 되었다. 여기에는 유니테리언 같이 가장 노골적인 현대주의적 개신 교회나 복음주의와 기성 교단 양쪽에서 거부한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까지 포함되어 있었다.<sup>12)</sup>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의 폭발적인 성공은 모든 교단이나 신학을 뛰어넘어 어떤 부풀려진 희망과 기대감을 갖게 하였고, 에큐메니컬 운동의 촉매제가 되었다.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그레이엄이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교회 지도자들과 교제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 찻잔의 희망은 점점 더 많은 이들 사이로 퍼져나갔다.’<sup>13)</sup> 자유주의자들에게는 교단의 숫적 확장을, 복음주의자들에게는 기존 교단(자유주의적)에서 복음주의자들이 더 큰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는 복음주의자들이 에큐메니컬 운동과 기성 교단 내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복음주의의 독특한 신앙을 훼손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생각했다.’<sup>14)</sup>

복음전도의 외적 성공을 위해 에큐메니컬 운동을 주저 않던 신복음주의는 ‘실용주의가 성경의 원칙을 대신하면서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sup>15)</sup>되었다. 19세기의 부흥집회는 강단 초청을 통해 공개적인 결단을 하게하는 것이 일상적인 전도 방법이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강단 초청에 응하는 것과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회심은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구원을 주는 믿음과 외적인 결단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착각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전도자가 초청할 때 죄인들이 반응을 보이는 것만 보고도, 거듭남의

---

11) 이안 머리, 『분열된 복음주의』, 49.  
12) 이안 머리, 『분열된 복음주의』, 61.  
13) 이안 머리, 『분열된 복음주의』, 67.  
14) 이안 머리, 『분열된 복음주의』, 73.  
15) 이안 머리, 『분열된 복음주의』, 82.

은혜가 확실하게 증명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회심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공개 결단이라는 부흥사 찰스 피니적 사고방식은 그대로 남아있었다.’<sup>16)</sup>

강단 초청에 반응을 보였던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음을 그레이엄 전도협회에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이런 방식을 고집했던 것은 가시적인 성과로 설교의 효과를 더욱 크게 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빌리 그레이엄의 실용주의적이며 업적과 숫자적 성과 위주의 전도는, 가시적인 성공에 비해 나중에 드러난 실질적인 성과는 형편없었다.

‘결신자’ 동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계속해서 신자로 남게 된 사람의 대다수는 기존 교인이었음이 자주 확인되었다. 그렇지 않은 결신자들은 곧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레이엄은 1954년 런던 집회를 후원했던 「브리티쉬」(British Weekly)도 결국 “(집회의) 효과는 원래 열심히었던 교인으로 국한 된다. 반면 교회 밖에 전체적으로 미친 영향은 수적으로 보면 별로 크지 않다.”라고 평했다.<sup>17)</sup>

이것은 피니의 복음전도가 많은 거짓 회심자들을 양산함으로써, 강단 초청에 응하였던 대다수가 세상으로 돌아갔던 것과 유사한 양상이다. 빌리 그레이엄을 중심으로 한 신복음주의의 복음전도는 더 많은 가시적인 업적을 확보하고, 대 사회적이며 초교파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에 의해 확대되었다. 그러나 그 실제적인 결과는 협소하였으며 오히려 교리적인 타협과 왜곡을 가져왔다.

### 3. 현대 교회의 복음전도

세속 경제에서 빌려 온 마케팅 전략이나 자아 개발을 위한 심리학적 기교에 의존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만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야 한다. 사람들의 필요 욕구를 채워 줄 수 있는 방법론을 동원해 관심을 끌려고 해서는 안 된다. 복음이 세상이 주는 것과 동일한 것들, 곧 성공, 출세, 건강, 감정의 치유 등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며 불신자의 관심을 자극하는 시도는 잘못이다.<sup>18)</sup>

현대의 복음전도는 찰스 피니나 빌리 그레이엄의 복음전도보다 기독교 자체를 더욱 광범위하게 왜곡시키고 있다. 실용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위적인 기법으로 대체했고, 심리학과 마케팅은 심리적 요법과 인간의 필요로 대체했으며, 신비주의는 인간의 체험으로 대체했다. 기독교계에서 이들 세력의 확장은 그럴 듯한 핑계내지는 변명으로 포장하여 사람들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분별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웰스는 다음과 같이 잘 지적하고 있다. “이 접근을 옹호하는 자들은 기독교 신앙의 형식만 바뀔 뿐이지 내용은 아니라고 장담하곤 한다. 성경적인 신앙은 수정되지 않고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만 바뀐다는 것이다. 복음은 그대로 있고, 교회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냉담해진 새로운 세대에게 그에 대해 말할 새로운 방법을 찾을 뿐이라고 한다. 교회가 기꺼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려는 모습을 보여 줄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변호하지만,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의도는 아무리 순수해도, 이 실험에서 형식이 실제로 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법론이라는 형식이 판매되는 신앙을 변형시키고 있다는 말이다.”<sup>19)</sup>

16) 이안 머리, 『분열된 복음주의』, 82-83.

17) 이안 머리, 『분열된 복음주의』, 87.

18) 월 메츠거, 『양보 없는 전도』,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49.

## 실용주의와 심리학

존 맥아더는 실용주의와 그 등장 배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많은 교회에서 이런 유의 실용주의가 초자연주의를 재빨리 대체하고 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능력보다 인간적인 방법론으로 영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시도다. 실용주의의 일반적인 척도는 외적인 성공이다. 실용주의는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원하는 반응을 유도하는 방법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사용한다. 실용주의의 바탕에 되는 전제는, 교회는 세속적인 수단을 통해 영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으로는 죄인의 무지와 마음의 완악함을 깨뜨리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sup>20)</sup> 존 맥아더가 잘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현대에 유행하고 있는 이들 모든 유사 기독교의 등장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의 실제성과 충분성을 의심하고 유기시킨 결과로부터 기인한다. 박순용 목사는 심리학이 기독교에 파고들게 된 배경과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기독교 심리학은 성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성도들을 제대로 돕기 위해서는 심리학의 도움을 입어야만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심리학이 들어오면서, 구원을 심리적인 안위로, 중생을 자존감의 회복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죄를 악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으로 규정하며, 회개의 필요성을 배격합니다.”<sup>21)</sup> 심리학의 교회 유입은 기독교를 성경이 말하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의 필요를 강조하는 심리적 요법을 제공하는 종교로 만든 것이다.

현대 기독교에서 ‘인간의 문제’는 죄에서 심리적 불안과 불만, 무미건조함으로 변질되었고, 유일하며 충분한 해결책이신 그리스도는 심리적 치료나 필요의 충족, 그리고 신비적 체험에 의해 변방으로 밀려났다. 죄는 더 이상 실제적이거나 치명적인 문제가 되지 않으며,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필요들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더 이상 충분한 구원자가 아니며, 인생의 행복을 위한 보조적이며 협력적인 존재일 뿐이다.

현재 미국교회에서 ‘형통과 부와 건강의 복음’의 최고봉인 텍사스 주레이크우드(Lakewood) 교회의 오스틴 목사에게 마이클 호튼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아주 평안한 방안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지 못한 인생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 보는 것 같다.”<sup>22)</sup>

미국교회에서 실용주의 교회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솔러와 빌 하이벨스는 기독교를 인간의 필요를 파악하고 제공하는 종교로 변신하여 사람들에게 접근함으로써 외적 성공을 이루어냈다. “만약 로버트 솔러가 사용자 편리 중심 교회의 설계자라면,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는 그 시공자다. 하이벨스는 솔러의 주장에 충실하게 움직인다. 나중에 스트로벨이 말하듯이, 구도자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메시지는 구도자들의 절실한 필요를 짚어 주는 것이다.”<sup>23)</sup> 솔러와 하이벨스의 차이는 솔러가 세속적인 심리학에서 힌트를 얻어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를 ‘자존감’으로 보았다면, 하이벨스는 ‘개인적인 성취’(혹은 행복의 추구)를 택하였을 뿐이다. 침체기에 있는 현대 미국 기독교계에 이들의 등장은 신선한 대안내지는 해방구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존 맥아더는 이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19) 데이비드 웰스, 『용기있는 기독교』, 홍병룡 역.(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8), 59.

20) 존 맥아더, 『그리스도 만으로 충분한 기독교』, 이용중 역.(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8), 28.

21) 박순용, 『기독교, 세상의 함정에 빠지다』,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9), 116.

22) 마이클 호튼,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김성웅 역.(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9), 99.

23) 게리 길리, 『마케팅 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김성웅 역.(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0), 85.

가장 나쁜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실제적인 영적 결핍은 간파하지 않고 사람들이 감정적인 느끼는 필요를 더 심각하게 본다는 점이다....진정한 문제, 즉 모든 어려움의 뿌리는 인간의 부패이다. 이 주제는 전형적인 '이용자에게 친절한 교회'의 가르침에서 (노골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지만) 조심스럽게 번두리로 내몰린다.<sup>24)</sup>

## 마케팅

마케팅 교회의 교인은 소비자이자 고객이기 때문에, 메시지는 철저하게 고객 지향적이라야 한다. 소비자의 불만이 죄이며, 만족이 곧 구원이다. 마케팅 교회의 전도는 소비자의 필요를 충분히 만족시켜주는 상품에 대한 일종의 광고인 셈이다. 마케팅 교회에서 그리스도는 순식간에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로 묘사 된다. 그러나 회심하지 않은 그들의 필요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대부분 그들의 타락한 자아가 요구하는 죄를 만족시켜주는 일이다. 이것은 죄인들을 비참하고 위태로운 상태에 계속 거하도록 내버려두고, 심지어 격려하는 꼴이 된다. 그들은 철저히 기만당하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한다. 그리스도 없는 교회의, 십자가 없는 복음에 의해, 회심 없는 종교인들이 빠르게 양산되고 있다.

마케팅 교회는 대중성과 적합성을 확보하여 외적 성장에 성공하는 대가로 기독교의 본질 자체를 왜곡 시키고 말았다. “마케팅 교회 지도자들은 구도자들에게 가장 잘 맞는 메시지는 그들의 절박한 필요들을 건드려 주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런 메시지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시장 조사와 최신의 대중심리학에서 나온 것이다.”<sup>25)</sup>

마케팅 교회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회심 없이 단순히 교회에 등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실제적이며 생명으로 얽힌 연합이 없다. 그들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그들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히12:8). 처음서부터 그들이 교회에 온 것은 자기 필요에 대한 만족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필요의 쇼핑몰’을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마케팅 교회의 CEO는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더 그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필요중심의 교회로서 되돌릴 수 없는 미궁으로 추락하고 만다. “자신의 메시지를 상실한, 믿음을 절충한, 숫자의 성공을 하나님의 복으로 착각한 현대 교회는 안으로 무너져 내릴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sup>26)</sup>

복음전도의 성과를 인위적으로 확보하려는 시도는, 복음의 거치는 것이 제거된 왜곡된 복음에 의해 회심 없이 들어온 교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설교를 계속하게 된다. 회심치 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는 복음이 아니라 그들의 변화되지 못한 자아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다. 마케팅에 의해 확보된 교인들은 끊임없이 고객예우를 해줘야 하며, 심리학에 의해 들어온 교인들은 상처를 위로해줘야 한다. 신비주의에 의해 들어온 교인들은 점점 더 자극적이고 강한 은사와 체험을 요구한다.

##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객관적인 계시 보다는 주관적인 경험에 비중을 둔다. 사실 체험 없는 계시는

24) 존 맥아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황성철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64.

25) 게리 길리, 『마케팅 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55-56.

26) 게리 길리, 『마케팅 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170.

공허하다. “신비주의란 하나님이나 궁극적인 실재를 직접적으로 아는 지식은 역사적 사실이나 객관적인 신적 계시와 관계없거나 심지어 반대되는 개인적, 주관적 직관 또는 경험을 통해 얻어진다는 사상이다.”<sup>27)</sup> 그러나 계시 없는 체험은 맹목적이다. 체험의 추구라는 명목 하에 계시를 무시하거나 계시와 동등하게 여기든지 계시위에 군림하게 될 때에 견잡을 수 없는 오류에 빠진다. 경험은 계시에 의해 검증받아야 하며, 계시를 뒷받침하는 것이라야 한다. “신비주의는 성경에 대한 이해 보다 개인적인 체험을 더 많이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함축함으로써 성경의 통일성과 권위를 약화시킨다. 신비주의는 종종 사적인 계시와 개인적인 생각을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영원한 진리와 동등하게 여긴다. 이처럼 신비주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 대신 인간을 높인다. 다른 무엇보다도 나쁜 것은, 신비주의가 오류를 진리로 둔갑시키는 치명적인 기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sup>28)</sup>

신비주의적인 전도는 특성상 대중들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기이한 현상들이나 기적 자체를 무분별하게 신뢰하게 함으로써 계시를 파괴하고 복음을 손상시키며, 혼합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빠질 위험성이 농후하다. “빈야드 지도자들과 작가들은 비신자들조차도 종종 치유를 받고 성령으로 인해 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회개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많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등 기도 전에 결심하였다고 한다.”<sup>29)</sup>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롬10:17).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바울은 줄곧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적이 요구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음을 손상시키는 까닭은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두기 보다는 이적 행위 자체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며, 대부분 이적은 복음에 대한 개인적 지식, 즉 복음에 대한 동의나 혹은 복음이 약속한 바를 믿는 믿음과 무관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sup>30)</sup>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요일4:1) 성령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이시다(요16:14). 이것이 영분별의 성경적인 근거가 되어야 한다.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옳다면,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실 때마다 거기에는 언제나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된다. 하지만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그 밖의 다른 것, 곧 이적 사역자나 아니면 심지어 성령 자신에게 그 영광이 돌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이 그 안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sup>31)</sup>

#### 축소되고 단순화된 복음전도의 내용

복음을 전할 때 몇 가지 핵심적인 사실만 반복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요즘의 복음 전도자들은 포괄적인 복음 신학을 최소한의 진리로 축소하려 한다....복음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그들의 태도는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할 위험이 많다. 복음을 단순화하는 것이 과연 온당

27) 존 맥아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 185.

28) 존 맥아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 29.

29) 찰스 콜슨, J.I.패커, R.C.스프라울, A.E 맥그래스 편집, 『능력 종교』, 채이석 역, (서울: 엠마오, 1996), 113.

30) 찰스 콜슨 외, 『능력 종교』, 195.

31) 찰스 콜슨 외, 『능력 종교』, 194.



한 일일까? 복음을 패키지 상품처럼 배포하기 쉽게 축소하는 태도가 과연 옳을까?<sup>32)</sup> 복음을 다시 회복하려면 ‘단순한 복음’을 고집하기보다는 다소 복잡해 보이더라도 ‘완전한 복음’을 제시해야 한다.<sup>33)</sup>

현대적인 전도 유형과 청교도적인 전도 유형은 그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 조엘 비키는 청교도의 전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청교도 전도란 죄와 그 결과들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과연 청교도들이 어떻게 선포했는가를 지칭하는 표현인 것이다. 곧, 구원이란 은혜로 말미암아 베풀어지는 것이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근거를 두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교도들에게 있어서는 전도란 단순히 그리스도를 제시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자가 그리스도안에서 자라나며, 교회의 교제 속에서는 물론 세상 속에서 그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서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청교도 전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구속의 경륜 전체를 선포하는 것이요, 동시에 죄인들을 믿음과 헌신의 삶으로 부르는 것이며, 또한 회개치 않고 불신앙을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영원히 정죄할 것임을 경고하는 것이다.”<sup>34)</sup>

이에 반해 현대의 복음전도 내용은 쉽고 단순하다. 그러나 허점이 많고 왜곡되기 쉬운 허점이 있다. 교세를 확충하는 일에만 온통 관심을 쏟아 부으면서 교인의 대량 생산 체제를 가동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 복음을 보다 빨리 배포하기 쉽도록 그 내용을 축소시킨 인스턴트 복음이 유행이다. 월 메츠거는 이런 복음의 축소화 경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바울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만이 유일하고 올바른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점에서, 성경적인 복음 전도는 최소한의 교육이 아닌, 최대한의 교육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1900년대 이후부터 복음을 패키지 상품처럼 만들어 전하는 새로운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을 제치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청중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복음을 가능한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필요했다. 이런 태도는 이른바 ‘단순한 복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냈다. 누구나 ‘단순한 복음’만 알면 즉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질병(죄)를 진단하는 과정이 축소된다. 천천히 시간을 갖고 질병을 야기하는 환자의 증세(죄의 본성)를 설명하는 과정이 생략되는 셈이다....‘단순한 복음’의 논리에 따르면, 신중하고 설득력 있는 태도로 복음의 교리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결국, 전도 훈련도 사람들을 빠르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방법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다....복음전도를 위한 대부분의 모임이나 회합이 메시지의 내용보다는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는 추세다....인간 중심의 복음이나 방법론에 초점을 맞춘 현대의 복음 전도와 하나님 중심의 복음에 초점을 맞춘 성경적 복음 전도를 맞보고, 그 차이를 식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sup>35)</sup>

복음전도 방식에 드러나는 왜곡된 신학과 부작용들

“현대 대부분의 복음전도는 감정에 맞게 조작되어 단지 죄인의 의지의 순간적 결단을 일으키

32) 월 메츠거, 39.

33) 월 메츠거, 63.

34) 조엘 비키, 『청교도 전도』, 김흥만 역,(서울; 청교도신앙사, 2002), 16-17.

35) 월 메츠거, 41.

는 데 집중되어 있고, 회심이 죄인에 대한 초자연적이고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행위의 결과라는 성경적 관념을 무시하고 있음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sup>36)</sup>

“복음을 전파할 때 결과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대권임을 잇는다면, 그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만 믿음을 주실 수 있음을 잇는다면, 회심자를 만드는 일이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 있고 결정적인 요소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다.”<sup>37)</sup>

우리가 회심자들의 수를 늘리기 위한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결단을 지나치게 강요하고, 복음 전도를 가시적인 직접적 결과로 판단하게 되면, 참된 복음 전도와 참된 교회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sup>38)</sup>

찰스 피니와 빌리 그래함 이후로 미국 교회와 미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전 세계의 교회들은, ‘펠라기우스적’이며 ‘알미니우스적’인 복음전도 방식과 왜곡된 회심 개념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이것이 현대식 전도 방식으로 고착됨으로서, 그것에 익숙해 졌으며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복음전도의 수단으로서의 결단과 영접기도는 믿음과 혼동되었으며, 이를 회심과 동일시하고 있다. 대학생선교회(C.C.C)에서 제작하여 복음전도에 널리 사용하는 ‘사영리’ 소책자를 보면 복음을 설명한 후에 전도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이 믿을 것을(영접할 것을) 요구하고, 영접하는 자는 즉각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친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는 설명해 줍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 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당신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당신이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다음 몇 가지를 비롯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요한계시록 3장 20절; 골로새서 1장 27절) 2.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골로새서 1장 14절) 3.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요한복음 1장 12절) 4.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요한복음 5장 24절) 5.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요한복음 10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sup>39)</sup>

국제전도폭발 한국본부(Evangelism Explosion Korea)에서 제작된 전도 소책자도 복음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사영리와 차이가 있으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역시 사영리와 동일하게 사람의 결정인 영접기도를 믿음으로 왜곡시키고, 이를 회심과 동일시하고 있다.

“당신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지금 당신이 계신 이 자리에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당신이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입으로 그 이름을 불러 시인하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영접 기도 생략)...당신이 마음 중심으로 이 기도를 드리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잘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

36) 켄트 필콧, 『진실로 회심했는가』, 이용복 역,(서울; 규장, 2009), 120.

37) 존 맥아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277.

38) 켄트 필콧, 122.

39) 대학생 선교회, 사영리에 대하여 살펴보셨습니까, 9~10, 13.

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요한복음 6:47)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이 참으로 당신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당신의 삶 가운데 모시고 이제부터 죄의 길에서 떠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로 결정하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환영해요. 오늘은 당신의 영적인 생일이예요. 이날을 항상 기억해 두세요.... 나의 영적 생일 카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로마서 10:13)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결정.”<sup>40)</sup>

현재 한국교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 소책자들에 따르면, 사람의 ‘의지의 행위’ 혹은 ‘결정’인 영접기도, 즉 믿음을 통해 즉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이 언제든지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행위인 영접기도(믿음)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원은 사람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손쉬운 것이 되었다. 구원에 있어서 주도권과 선택권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박탈되었으며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회심은 왜곡되었다.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회개하지 않고 영접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대개 영접 기도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수단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들이 영접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복음전도가 결실을 거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접 기도는 현대 복음전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즉 죄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구원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잘못된 개념에 근거한다. 영접 기도는 인간의 결단을 중시하는 신념에서 파생된 결과로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다. 이를 전제로 하는 현대 복음전도는 사람들이 구원을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구원해 주셔야 한다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복음전도는 중생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뒤집어엎고(요3:3-8 참조) 복음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자기에게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요6:44 참조) 영접 기도는 구원의 시작과 보증이 전적으로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신념에 기초한다. 이런 점에서 영접 기도는 참된 복음 전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sup>41)</sup>

이런 전도 방식을 성경적인 검토 없이, 전통과 관습에 따라 무비판적으로 사용한 한국교회는 복음전도에 있어서 정확하게 찰스 피니와 빌리 그레이엄의 후예임을 증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혁주의 교단에서조차도 이런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복음전도의 실행에 있어서 성경적인 대안이 대중적으로 폭넓게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강단의 신학과는 별개로 복음전도에서 이런 방법을 그대로 차용한다면 이는 나태와 직무유기, 그리고 신학적 무지의 결과다. 이 ‘결심주의’ decisionism 신학에 따르면 믿음이 사람이 손쉽게 행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 그러나 회심은 믿음과 회개 등의 사람의 편에서 나타나는 행위이지만, 그 원인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안에서 행하신 일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결정이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회심할 수 있는 것이다.

믿음이 인간의 ‘의지의 행위’나 ‘결정’이라는 주장은 심각한 성경의 왜곡이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인간의 의지나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인 거듭남에 따라 사람은 회심(믿음과 회개)하게 된다.<sup>42)</sup> 또한 이 거듭남은 누구도 통제하거나 인위적으로 획득할 수 없고,

40) 국제전도폭발 한국본부, 당신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15-19.

41) 존 맥아더+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선교팀, 『담대한 복음전도』, 조계광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2), 185-186.

오직 성령에 의해 임의적이며 주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예수께서는 가르쳐 주셨다.<sup>43)</sup> 구원의 주도권과 선택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스스로 믿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친다.<sup>44)</sup>

복음 전도란 사람들의 지혜나 도덕에 호소하여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내거나 의지적인 결단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수사법(고전2:1)으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고전2:4)로도 그들은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지 않는다. 아담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롬5:12;엡2:1) 그들에게 복음은 미련하고 혐오스런 것으로 여겨질 뿐이기 때문이다. 마른 뼈에 지나지 않는 자들(겔37:4)에게 진리가 보이거나 들릴 리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행28:26-27). 복음전도는 거듭나지 못한 모든 자연인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여기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고전2:2)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반응과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복음을 교묘히 포장하거나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

“많은 이들이 어떤 교묘한 장치가 없으면 복음의 메시지는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할 것이며 복음을 우리 시대의 유행에 맞추지 않으면 복음이 효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sup>45)</sup>

오히려 자연인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여기는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한다. 복음을 듣기 좋은 말로 바꾸거나, 십자가의 거치는 것을 제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관적으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불러내시고 교회로 연합시키신다. 성령을 통해 가르치심으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셔서(고전2:12)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신다. 그럴 때에야 그들의 믿음의 출처는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sup>46)</sup>

복음전도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복음을 듣는 자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복음을 전하는 자도 복음을 듣는 자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복음전도자는 자신의 지혜나 설득력 있는 말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자연인의 지혜에 호소하여 믿음을 촉발 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게 되는 사람이 지닌 신적인 감각의 결과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어떤 외적인 수단을 통해서도 거듭나게 할 수 없다. 태어나는 아기가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스스로

42)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요한복음 1:10-13)

43)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요한복음 3:8)

44)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고전1:21)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전1:22-24)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전2:9)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전2:14)

45) 존 맥아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 150.

46)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전2:5)

태어날 수 없듯이, 영적 출생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다. 켄트 필콧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1994년, 나는 미국에서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들의 역사를 읽기 시작했다. 책을 읽어 내려가던 중 내 눈길을 사로잡아 나를 얼어붙게 만든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1820년대 아사헬 네틀톤(Asahel Nettleton, 1783-1844, 대각성 운동 중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 신학자이자 목회자)과 찰스 피니(Charles Finney, 1792-1875, 19세기 초 미국에서 부흥운동을 이끈 중심인물 중 한 사람)가 벌인 ‘방법론 논쟁’이었다. 찰스 피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절차, 수단, 방책)이라는 것을 사용했다. 여기에는 소위 ‘제단으로의 부름’(the alter call, 사람들을 설교단 앞으로 불러내는 것)과 그들로 하여금 ‘영접기도’를 드리게 하는 것이 포함되었다(사실, 지금도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네틀톤은 이런 방법이 성경의 방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했다.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고 성령께서 사람을 회심시키도록 의지하는 것이 성경의 방법이다. 그는 피니가 사용하는 방법이 결국에는 잘못된 회심의 고백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네틀톤의 견해에 동의하게 되었다. 것처럼 나도 비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실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착각에 빠지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sup>47)</sup>

한국 기독교는 교단이나 목회자의 신학과 관계없이 복음전도에 있어서 찰스 피니나 빌리 그래함의 비성경적인 방식을 비판 없이 수용하였다. 이는 아마도 한국의 선교 초창기의 미국 선교사들의 복음전도 방식에 영향을 입은듯하다. 그 결과로 개혁주의적 신학을 표방하는 교단의 교회에서조차도 신학과 목회, 강단과 복음전도의 괴리는 흔한 현상이 되고 말았다. 켄트 필콧은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10년전, 나는 회심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때까지 29년 동안 목회하면서 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회개하고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다....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정(결심)하는 것이 회심과 동일한 것인가? 우리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계시해주셔야 회개와 믿음이 가능하다는 것도 잘 안다. 사실 복음주의자 대부분은 ‘구원의 은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중생(거듭남)이 오직 성령님의 활동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믿는다. 나 역시 복음주의자로서 이렇게 믿었다. 하지만 나의 실제 전도 방법은 내 신학과 달랐다.”<sup>48)</sup>

복음전도자는 사람들이 영접기도를 드리게 하여 삼폐인을 터뜨리려고 하면 안 된다. 수단에 의한 즉각적인 결과를 확보하려거나 그런 결과에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충실히 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겸손히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내가 아르미니우스주의적 사역을 했던 시기에 거짓 회심들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그 이전이나 이후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 자신이 회심했다고 착각하는 일은 앞으로도 항상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돕는 ‘방법’(테크닉)을 사용하는 것이나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들을 회심의 징후로 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내가 발견한 성경의 회심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의 변화 없이 ‘방법’만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런저런 영적 현상들을 흉내 내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sup>49)</sup>

47) 켄트 필콧, 8-9.

48) 켄트 필콧, 6-7.

49) 켄트 필콧, 11.

인위적인 수단을 통한 교세확충은 우리들에게 계속되는 도전과 유혹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비성경적 수단으로 무분별한 교세확충을 꾀하는 일을 금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우리의 성과와 자랑으로 돌리려는 두려운 행위이며 사람을 기만하여 참된 회심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왜곡하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이다.<sup>50)</sup>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인간의 탐욕에 대한 무서운 역습이며 저주이다.<sup>51)</sup>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매혹적인 제안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이 내게 던져졌고, 나는 그것을 꽤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 제안은 이런 것이었다. “그물을 넓게 던지십시오. 다시 말해서, 온갖 전도 방법을 다 사용하여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교회로 모이게 한 다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도록 하십시오. 최근에 유행하는 예배 형식들을 도입하고, 사람들을 결신으로 이끌고, 기독교가 아주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며,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하십시오.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여 불러 모은 사람들이 회심하지 못한다 해도 손해 볼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교회에 계속 출석한다면 복음을 계속 들을 것이고, 그러다보면 그들 중 회심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전혀 나오지 않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기독교와 계속 접촉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논리에 설득될 뻔했다. 아무튼 나는 재판관도 아니고 배심원도 아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하실 것이다. 사실, 나도 사람들을 결신으로 이끄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는 방법들을 여러 해 동안 사용해 보았다. 그러나 거짓 회심의 큰 위험성을 깨닫게 된 후로 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으며, 사람들을 회심으로 이끈다는 명분으로 비성경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게 되었다.<sup>52)</sup>

## 4. 참된 교회와 복음전도

### 복음전도의 정의-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전도를 복음 전도의 열매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오해를 복음 자체 및 성경이 회심에 대해 가르치는 것에 대한 오해와 결합시킨다면, 복음 전도는 다른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을 보는 것이라는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것이 우리의 능력의 범주 안에 있다는 생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집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는 결과에 따라 정의될 수 없고, 오직 신실하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에 따라 정의될 수 있습니다.”<sup>53)</sup>

“현대 대부분의 복음 전도는 감정에 맞게 조작되어 단지 죄인의 의지의 순간적 결단을 일으키는 데 집중되어 있고, 회심이 죄인에 대한 초자연적이고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행위의 결과라는 성경적 관념을 무시하고 있음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sup>54)</sup>

50) “우리는 회심의 신비를 풀기 원한다. 이것은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는 유혹이다. 우리는 자력으로 처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구체적 방법을 발견하여 구원에 이르기 원한다. 그리하여 구원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우리 손으로 움켜쥐려고 시도했다. 회심이 우리에게 가시적이고 분명한 것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방법들을 고안해내려고 애썼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사람들을 회심시키지 못하고 단지 기독교화하고 말았다.”(켄트 필콧, 51)

51) “그동안 영접 기도를 통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뒤로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당의 좌석을 가득 채우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교회의 순결을 해치고 있다. 많은 불신자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그토록 무기력한 이유다. 교회는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짓 신자들, 곧 성령으로 거듭나기는커녕 기독교의 기본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에 받아들이는 것은 기독교를 세속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그런 기독교는 배교와 알맹이 없는 헌신을 독려할 수밖에 없다.”(존맥아더+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선교팀, 200)

52) 켄트 필콧, 12-13.

53) 마크 데버, 『복음과 개인전도』, 김귀탁 역.(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9), 118.

“혼란의 원인을 묘사하는 데는 다음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 즉 전달된 메시지가 아니라 청중의 마음에서 산출된 효과를 바탕으로 복음전도를 정의하려는 고집스런 습관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sup>55)</sup>

“복음전도는 인간의 몫이고,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sup>56)</sup>

현대적 복음전도와 성경적인 복음전도의 차이는 구원론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sup>57)</sup> 현대적인 복음전도는 인간의 주도적인 의지와 결정에 의한 구원을 가르치고, 성경적인 복음전도는 성령에 의한 주권적인 회심으로서의 구원을 가르치고 있다. 마크 데버의 전도 대화에서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일은 하고 어떤 일은 안 하거나 어떤 법을 따라 어떤 일은 하지 않는 식의 문제가 아니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삶이 바뀌는 일이야.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강압적인 힘이나 인간적인 강요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에게 복음을 정확히 전달하고, 너에 대해서 사랑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너에게 너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일이 전부야. 난 하나님이 너에게 구주가 필요함을 알려주시고 회개와 믿음의 선물을 주시도록 기도할 수는 있지만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는 없어.”<sup>58)</sup>

회심을 이끌어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속한 것이다. 만일 우리가 어떤 비상한 수단을 통해 회심을 이끌어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성령의 역할을 박탈하는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다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우리의 책임이고, 회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다. 성경에 따라 이러한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복음전도에 대한 올바른 정의, 성경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성경은 사람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겸손히 고백하고 있다.<sup>59)</sup>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셨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태복음 16:17)

회심은 복음전도의 목표이지 복음전도는 아니다. 우리는 복음전도와 복음전도의 목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복음전도의 목표인 회심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다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뿐이다. 회심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연합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복음전도의 성공여부는 회심의 성공이나 더 많은 회심자의 숫자를 확보하는데 있지 않다. 복음전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복음을 충실하게 전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회심하지 않았다고 해도 복음전도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실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경우에만 복음전도에 실패한

54) 마크 데버, 『복음과 개인전도』, 120.

55) 제임스 패커, 『복음전도란 무엇인가』, 조계광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7), 59.

56) 제임스 패커, 『복음전도란 무엇인가』, 62.

57) 물론 복음전도는 비단 구원론에만 연관되어있지는 않다. 교리의 각 주제가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58) 마크 데버,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 이용중 역,(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7), 183-184.

59)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전3:6-7)

자가 됩니다.<sup>60)</sup>

윌리엄 거널(William Gurnall)은 목회자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람들을 보내시지만 그들을 회심시키는 임무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sup>61)</sup>

다음과 같은 익명의 저술가의 복음전도에 대한 정의는 복음전도에 임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적인 시각을 갖도록 도와준다. “전도는 개종자를 만들어 내는 일이 아니다. 결단을 내리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기독교의 진리를 멋지게 변론하는 일도 아니다. 누군가를 모임에 초대하는 일도 아니다. 이 시대의 곤경을 드러내거나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일도 아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씌어진 배지를 달고 다니는 일도 아니다. 이런 일들은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올바르고 선한 일이지만 그 어느 것도 전도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전도란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타락한 상태를 경고하며 그들이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다.”<sup>62)</sup>

#### 복음전도의 목적과 동기-하나님의 영광

“복음전도의 동기는 잃어버린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마28:19) 고 말씀하신 지상 명령에 대한 순종에도 있다. 그러나 복음 전도의 최고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sup>63)</sup>

“궁극적으로, 복음 전도에 대한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보겠다는 욕구에 두어져야 합니다.”<sup>64)</sup>

복음전도가 가시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정의될 때, 복음전도의 목적은 단순히 더 많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되고 만다. 패커의 표현처럼, 복음전도는 우리의 몫이지만 회심은 하나님의 몫이다. 복음전도가 목표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다. 그러므로 회심은 전도의 목표이지만 전도의 목적은 아니다. 만일 사람들의 생각처럼, 우리의 최선의 노력과 기발한 수단이 죄인의 회심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결과는 사람을 영예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과 같이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몫이 될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한다. 왜 회심자를 얻고자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회심자를 얻고자 한다. 패커는 복음전도의 동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복음전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려면 두 가지 동기가 필요하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려는 마음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의 행복을 구하려는 마음이다.”<sup>65)</sup>

복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예정되었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으며, 아들을 통해 성취하신 죄인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에 따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교회를 통해, 자신의 영으로, 자신의 아들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 하도록 하셨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에게 위임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순종이 복음전

60) 마크 데버, 『복음과 개인전도』, 177.

61) 조엘 비키, 120.

62) 마크 데버,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 189로부터 재인용.

63) 예롤 헬스, 『칼빈주의 기초』, 김귀탁 역,(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2), 153.

64) 마크 데버, 『복음과 개인전도』, 157.

65) 제임스 패커, 『복음전도란 무엇인가』, 107.



도의 기본적인 동기다.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 하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단순한 순종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며(고전6:20;7:23), 따라서 이제는 감사 어린 순종의 계약으로 주인에게 묶여있는 존재다.”<sup>66)</sup>

존 스토트는 복음전도의 궁극적 동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져야 할 영광과 이에 반하는 우상숭배에 대한 질투, 그것이 바로 복음전도의 열정이라고 설명한다. 나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강렬한 마음으로부터 끓어오르는 열정, 그것이 바로 복음전도의 지고의 동기라는 것이다.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는 그 우상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질투를 촉발시킨다. 단지 언약이 아니라 창조가 질투의 근거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질투’인 이유는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즉 유일하게 참되며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만일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인간의 유일한 창조주이자 주인이시라면,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독점하실 권리가 있으며, 우리가 신이 아닌 우상들에게 오도될 때 당연히 질투하실 수 있다....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이 정당하며 그분의 이름에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에게로 돌아서 버린 인간의 사악함을 거부하고 반대하시는 것이 정당하다면 그분의 백성 역시 그분의 질투에 공감해야 한다는 것이다....이교도의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한 질투심 때문에, 그는 복음 전도에 열정을 품었다. 사실 ‘질투’와 ‘열정’은 같은 단어다.(그것은 바로 *zelos*라는 단어다. 하나님의 전을 향한 예수님의 열심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향한 질투였다.)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예배했던, 혹은 사실상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거부했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에게서 불타올랐다.”<sup>67)</sup>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열망은 복음전도의 최고의 동기로서, 존 스토트는 다음과 같이 예배와 전도의 연관성을 매우 훌륭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실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 혹은 유일무이성만이 인간이 드리는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인식하면 할수록, 인간은 하나님이 그 사실을 입증해 주셔서 다른 모든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나아오게 되기를 더욱 갈망하게 된다. ‘다 여호와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예배는 가치를 아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는 절대적이다. 이것이 내게 사실이라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사실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신실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증인이 되지 않을 수 없다.<sup>68)</sup>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 직하게 하려 하심이라(롬 15:16).’ 이 전체 문장은 희생 제물과 관련된 단어와 이미지로 가득하다. 그는 복음 전도자를 제사장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제사장 직무’로 생각하고 있다. 구약에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복음 전도자는 무엇을 제물로 바치는가? 바로 자신이 회심시킨 사람들이다...이것이 함축하는 의미는, 복음 전도(복음을 설교하는 일)나 그 일의 즉각적인

66) 존 스토트, 『존 스토트의 복음전도』, 김성녀 역,(서울: IVP, 2001), 22-23.

67) 존 스토트, 28-30.

68) 존 스토트, 34-35.

결과(회심자를 얻는 일)가 둘 다 그 자체로는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이다....성경적인 복음 전도는 회심과 함께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심을 예배를 향한 서곡으로 본다. 복음 전도자는 구원 받은 회심자에게 주어질 유익을 넘어,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심자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그리고 일단 그 회심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그는 다시금 증인이 되어 세상을 향해 내달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배와 증거는 서로 맞물려 있다. 한쪽은 다른 하나가 없으면 불구가 된다. 그리고 한쪽이 충실하게 진행된다면 다른 한쪽으로 이어져서 끝없는 연결고리가 생성되어 열매를 맺게 된다. 예배는 증거를 통해서 표현된다. 그리고 증거는 예배를 통해 완성된다. 이것을 하나로 묶는 주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우리는 현대의 복음 전도에서 이것이 지고의 동기가 되도록 힘써야 할 커다란 사명을 가지고 있다.<sup>69)</sup>

## 복음전도의 자세와 태도

우리가 복음을 더욱 매력적인 것으로 바꾸게 되면 우리는 진리를 제시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미련하고 거리끼는 참된 성경적 복음을 전한다면 칭증이 우리에게서 멀어질 것을 각오해야 한다.<sup>70)</sup>

우리는 성경에 따라 복음전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고통과 희생, 무관심과 조롱, 그리고 미움과 핍박, 그리고 실패들을 미리 예상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타협 없는 성경적인 복음전도는 대중성을 포기해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중의 구미에 맞춰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실용주의적 교회들에는 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대중이 알아들을 수 없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대중으로부터 조롱과 소외를 견뎌내야 한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커다란 인내를 요구하는 고통이자 유혹임에 틀림없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잃어버린 자에게 다가가는 것은 어렵고 큰 희생을 요구한다. 더욱이 결과는 매우 더디게 나타나며 보상은 시간이 걸린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불쾌해하며, 심지어 동료 신자들도 신실하게 증언하는 일을 조롱하기도 한다.<sup>71)</sup>

왜 복음전도는 필연적으로 조롱과 무관심, 그리고 미움과 핍박을 수반하는가?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창2:17; 엡2:1)로 죽어, 그들에게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며 미련한 것(고전1:23)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부패한 지성은 복음을 감각하거나(고전2:9), 구세주를 알아보고 영접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요1:9-11),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고전2:14). 또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당하는 것이며(요 15:18-20),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핍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마10:21). 세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에 대하여 적대적이며, 본성적으로 영적 진리를 이해하거나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단은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고후4:4).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죽음을 당하셨다면, 마땅히 주님의 몸인 교회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이방인(히11:13; 벧전1:1; 요삼1:5)으로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당하고, 우리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세상과 분쟁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경험하는 각종 고난은 은혜로 받은 신령한 복의 표식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

69) 존 스토트, 36-37.

70) 게리 길리,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 김세민 역,(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1), 259.

71) 존 맥아더, 『전도, 그 이상의 축복』, 정길호 역,(서울: 소망, 2010), 262-263.

때문에 세상으로 부터 당하는 박해야 말로 머리이신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참 교회로서의 증표요,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이 참된 진리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마10:25)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요15:18-21)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마5:10-12)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갈4:29)

세상은 교회를 대적할 뿐 아니라 스스로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의 복음전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전도의 결실을 인간의 일로 생각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고 좌절하게 된다. 잘 기획된 전도 계획과 능숙하게 훈련된 전도자, 정기적인 기도가 뒷받침되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하게 되면, 거둬진 실패와 함께 전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이내 두려움과 낙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복음전도의 결실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더 많은 실패를 예상하고, 우리의 한계를 당연시하고 탄식해야 한다. 진리에 대해 무감각한 소경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전도는 한없이 미련한 행위(고전1:21)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개입하지 않는 전도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기획해 놓으시고, 교회에게 그것을 맡기시기를 기뻐하셨다. 신자는 씨를 뿌리며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탄식 속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이다(시126:5).

우리는 복음전도의 결과와 열매를 우리의 노력과 수단으로 돌리는 월권과 주제넘음을 조심해야 한다.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항상 의식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해서는 곤란하다. 사람들을 이끌어 복음을 듣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복음전도 사역은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이다. 구원을 주는 능력은 수단에 있지 않다. 그 능력은 수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sup>72)</sup>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조건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sup>73)</sup> 그러므로 영혼들을 얻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손으로 가져오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 실용주의적이거나 결단을 요구하는 전도를 통해 가시적 성공만을 거두려는 노력은 주제넘은 월권행위이다. 복음전도는 우리의 과욕으로 실질적인 성과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없는 우리들만의 자축연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책임은 교회에게 맡기셨지만, 전도의 성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남겨두셨다.

동시에, 우리는 예정론이나 제한속죄의 교리를 속죄의 효력이나 범위, 하나님의 값없는

72) 제임스 패커, 『복음전도란 무엇인가』, 44.

73) 제임스 패커, 『복음전도란 무엇인가』, 163.

사랑을 축소시키는 교리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교회사를 보면 너무나도 자주 개혁주의 교리를 오해함으로써 복음전도의 열정이나 적극성을 상실한 경우가 많았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대한 신학을 잘못 이해하면 복음전도에 대해 매우 수동적이 되거나 회의적이 된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선택받은 자가 아니면 절대 구원할 수 없다는 생각이나, 사람이 굳이 전도에 열심을 내지 않아도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반대로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우스적인 신학은 복음전도에 대해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이 되게 한다. 이 신학에 따르면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 수단 등에 의해 복음전도의 열매와 성공이 극명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인위적 수단에 의한 열매는 그리스도와와의 실제적인 연합이 없는 거짓 회심이요, 거짓 구원일 뿐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와의 영적인 관계가 없는 그들만의 회심이요, 그들만의 바벨론 교회일 뿐이다.<sup>74)</sup> 그들은 스스로의 의지와 결정으로 가시적 교회의 일원은 되었으나,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따라 중생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으로서의 불가시적 교회에 참여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의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 다른 진리를 뚝 잘라내 버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즉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잘못을 모두 경계해야 한다.<sup>75)</sup>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복음전도에 대한 우리의 나태함에 대한 변명이나 핑계거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회심은 아니지만 전도는 여전히 우리의 책임이다. 회심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에 반응할 능력이 전혀 없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된다. “복음 전도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주체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뒤를 따라 복음전도라는 흥미진진한 모험을 시작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문을 열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시는 대로 따라 들어가면 그만이다.”<sup>76)</sup>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뿐이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고전3:6-7). 전도의 결과를 우리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맡길 때,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와 소망, 그리고 담대함과 용기를 갖게 될 것이다.

“기독교학생회(IVF) 회장을 역임한 존 알렉산더(John Alexander)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선교 사역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만일 예정론이 맞다면 내가 선교사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 마음의 강박함과 더불어 20여년의 투쟁을 벌이고 난 지금에 와서 나는 만일 내가 예정론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선교사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정론은 다른 열방 중에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다른 양들이 분명히 있다는 소망을 준다.”<sup>77)</sup>

“복음에 있어서 부르시는 분은 그리스도다. 세계 선교에 있어서 자기 양을 모으는 분은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양들이 올 것이라는 철저한 확신이 있는 것이다.”<sup>78)</sup>

74) “그 때에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7:23)

75) 제임스 패커, 『복음전도란 무엇인가』, 41.

76) 윌 메츠거, 33.

77) 존 파이퍼, 『열방을 향해 가라』, 김대영 역.(서울: 좋은 씨앗, 2003), 85.

78) 존 파이퍼, 85.

하나님께서서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게 하실 것(행13:48)이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요6:39;17:12;18:9)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도처에 있으며(행18:10), 휘어져 추수할 곡식에 비해 오히려 추수할 일꾼이 턱없이 부족(눅10:2)할 정도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선교에 대한 바울의 열의는 가는 곳마다 주님이 선택받은 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신다는 확신에서 비롯되었다(딤후2:10). 루디아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바울 사도에게 맡겨진 의무였지만,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행 16:14)”<sup>79)</sup>

### 복음전도의 수단과 방법-말씀과 교회

패커의 말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결단을 내리도록 만들기 위하여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모든 수단들은 삼가야 한다. 그런 것들은 성령의 영역을 침범하는 주제넘은 짓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것처럼 압박을 가하는 방법들은 심지어 해를 끼치기까지 한다고 한다. 그것들이 ‘외형적인 결단의 모습을 만들어 낼 수는 있으나, 중생과 마음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고, 또한 그 결단이 식어져 버리면 그 결단을 했던 사람은 오히려 복음을 완악하게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sup>80)</sup>

교회성장주의자들이 흔히 내세우는 슬로건이 ‘진리는 결코 변할 수 없으나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은 시대의 상황에 맞게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전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복음전도의 모든 것이 신학과 밀접하게 관련성을 갖는다. 복음전도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복음전도의 목표와 목적, 그리고 수단과 방식까지도 달라진다. 신학은 복음전도를 정의하고, 복음전도는 신학을 반영한다. “복음 전도는 단순히 사람을 교회의 회원으로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타당한 신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복음 전도가 인간의 계략과 기교나 실용주의 방법으로 되어가는 것은 위험하다. 골격이 몸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신학은 복음전도와 관계를 맺는다. 신학은 전도의 골격을 형성하기 때문에 전도에 선행해야 한다.”<sup>81)</sup>

복음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며, 자신의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전도 수단이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마태복음 13:3-9)을 보면 씨가 결실하게 되는 것은 씨나 씨를 뿌리는 자나 씨를 뿌리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밭의 성격과 속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농부는 부지런히 씨를 뿌릴 뿐이며 밭의 성격을 옥토로 만드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한 복음 선포에 최선을 다하고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겨야 한다.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강제력이나 강요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 곧 좋은 소식을 정확히 제시하고, 비신자들을 향해 사랑의 삶을 살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와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참된 성경적, 기독교적 복음 전도는 본질상 강제가 아니라 오직 선포와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sup>82)</sup>

각종 수단이나 방법들이 더 많은 회심자를 얻게 하는데 효율적이라거나, 복음전도에 뒤따

79) 마이클 호튼, 『갈빈주의 찬성』, 윤석인 역.(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2), 307-308.

80) 조엘 비키, 122.

81) 박영호, 『청교도 실천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516.

82) 마크 데버, 『복음과 개인전도』, 107.

르는 고통이나 희생을 감소시켜줄 수 있다는 신화를 버려야 한다. 복음전도의 진정한 효력은 오직 성령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는 회심자를 얻어낼 수가 없다. 외적 수단으로는 등록 교인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를 얻을 수는 없다. 성령은 누구신가? 그리스도를 증거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다. 죄인들을 거둬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다. 그러나 성령은 인간이 통제하거나 조종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은 주권적으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다만 복음전도를 위임하셨다. 하나님의 전도 수단은 우리 자신, 즉 교회이다. 복음전도의 결과까지 우리가 얻어내야 한다고 명하신 일이 없다. 복음전도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겨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수단들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충분성을 믿고 충실하게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과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sup>83)</sup>

궁극적으로 볼 때 복음전도의 수행자는 단 한 분, 즉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복음전도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어 복음을 윤택하게 설명하고,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게 하신다. 또한 성령으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여시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 신앙에 이르게 하신다...복음전도의 진정한 사역자는 그리스도이시고, 설교자나 복음전도자는 단지 그분의 입을 대신해 말씀을 전할 뿐이라는 기본 진리를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볼 때 복음전도의 방법은 오직 하나, 곧 복음의 메시지를 충실히 설명하고 적용하는 것뿐이다.<sup>84)</sup>

하나님은 교회를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세상에 침투해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sup>85)</sup>과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전도 수단이다.<sup>86)</sup> “초대 교회에서의 복음전도 정책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는 것이었다. 오늘날의 복음전도 정책은 사람들을 그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교회로 초청하여 설교를 듣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는 흡입, 초청, 질질 끌고 오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반면에 초대 교회는 탐험, 침투, 봉사라는 방법을 사용했다. 초대교회에서 복음은 종종 철학 학당에서 논쟁되었고 길거리에서 토론되었고 빨래터에서 이야기되었다. 오늘날 복음은 거의 토론되지 않고 있고 특별히 세속적인 곳에서는 전혀 토론되지 않는다. 복음은 주일날, 교회에 속한 것이고 정당하게 성직을 받은 목회자만이 모든 이야기를 해야 한다.”<sup>87)</sup>

모든 신자가 열심히 기도하며 복음 전도에 힘쓰지 않으면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사람들이 거둬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산파 역할을 할 수 있는 신자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소그룹 성경공부, 설교, 대중매체를 통한 전도 활동 등 어떤 형태의 복음 전도든지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만남이 전제되어야 한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설

83)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1:21)

84) 제임스 패커, 『복음전도란 무엇인가』, 124-125.

85)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는 유일무이하고 절대 필요한 방편임을 주장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R. B. 카이퍼, 『전도신학』, 박수준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9), 143)

86)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10:17)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롬10:14-15)

87) 마이클 그린, 『현대 전도학』,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473.

명하고 믿음을 권유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sup>88)</sup>

## 복음전도의 목표, 회심

복음이 전파될 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고유한 특권이라는 사실을 잇는다면 그 결과까지도 우리의 책임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즉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잇는다면 사람들의 회심이 우리에게 달려 있으며,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회심을 끌어내는 일까지 우리의 몫으로 간주하면(즉 복음을 성실히 전할 뿐 아니라 성공적으로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복음전도의 접근방식이 실용적이고 타산적으로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sup>89)</sup>

복음전도의 목표는 회심이다. 회심자를 양산해 내는 것이 복음전도는 아니지만 복음전도의 목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 목표는 인간이 달성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러므로 이 목표를 위한 각종 인위적 수단들이나 방법들을 포기해야 한다. 회심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있으며, 복음전도의 효력이 수단에 있지 않고 말씀과 성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복음전도의 목표와 복음전도를 혼동하면 안 된다. 복음전도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그러나 회심은 하나님의 책임이며 영역이다. 회심마저도 인간이 산출해 내려할 때 복음전도의 심각한 왜곡과 부작용을 낳는다. “청교도들은 중생과 회심이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서 설교자나 청중이나 모두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존한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그가 원하시는 때에, 그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가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었다.”<sup>90)</sup>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분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한다. 인위적 수단을 강조하여 회심을 얻어내려는 시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폐기하는 것이며, 성령을 인간의 수단으로 대체하는 행위다. 현대 교회는 성령의 능력보다는 사람의 힘을 의지한다.

그러면 죄인은 회심을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므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에드워즈는 하나님께서 중생을 위해 일정한 수단을 지정하셨다고 가르쳤다. ‘은혜의 수단에 대한 강조는 청교도 신학의 특징들 중 하나였다. 하나님은 만일 원하신다면 어떤 수단도 사용하지 않고서 즉시 인간들을 회심시키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에드워즈는 주장한다.’<sup>91)</sup> 그러나 그는 이런 수단들을 시행하는 것이 회심의 증거라거나, 이런 수단을 행하기만 하면 반드시 회심하게 된다고 가르치지 않았다.

구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주권적 선택과 은혜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었다. 찾고 애쓰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보장은 없었다. ‘그러나’라고 에드워즈는 첨언했다. 경험적으로 볼 때, 열심히 찾는 자는 대부분 구원을 얻었다. 일반적으로 최선을 다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고 단호한 결단으로 목표를 추구한 자들은 다 ‘회심의 은혜’를 얻었다....‘부지런히, 중단 없이, 그리고 집요하게 회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대개 성공을 주십니다.’ 추구한다고 해서 모두 구원 얻는다는 보장은 없었다. 그러나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멸망은 확실했다.<sup>92)</sup>

에드워즈는 회심의 은혜를 얻기 위한 구도자적 노력은 한 인간의 생애 있어 최고의 중요성을 가진 일이라고 주장한다. 영원한 구원의 문제는 세상 다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88) 윌 메츠거, 21.

89) 제임스 패커, 『복음전도란 무엇인가』, 44.

90) 조엘 비키, 121.

91) 양낙홍, 209.

92) 양낙홍, 269.

인간은 이 문제에 최우선적인, 그리고 최고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인간은 구원을 얻기 위해 전 생애를 바칠 용의가 있어야 했다. '단지 능력, 힘, 그리고 재산만이 아니라 시간, 그리고 생명까지도 이 일에 바쳐야 한다. 실로 우리는 전 생애를 그 일을 위해 포기해야 한다'고 에드워즈는 외쳤다. '당신의 남은 생애 동안 그 일에 온전히 전념하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한 구도의 일은, 에드워즈에 의하면, 틀나는 대로 조금씩 할 일이 아니었다. 능력을 부리면서도 할 일도 아니었다. 회심하기 원하는 자는 '이 일에 완전히 전념해야' 했다. 그것은 '대단한 관심을 기울여야'하는 일이었다. 인간은 '대단한 갈망과 강력한 결의'로 '있는 힘을 다해' 회심하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했다.<sup>93)</sup>

## 복음전도의 과정(Process)

복음전도의 목표인 회심을 보기 위해서는 단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과정으로 이해하고 실행되어야 한다. 단시간에 '사람의 의지적인 결단을 확보'하려는 현대의 복음전도는 인간의 결단의 여부(영접기도를 하든지 교회에 출석하든지)에 의해 성공과 실패가 결판나는 단회적인 이벤트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개혁주의 전통에 따르면 복음을 전하여 회심을 이끌어내는 산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복음전도이므로, '회심의 전 과정' whole process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속적이며 과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피터 마스터스는 그의 책 '영혼의 의사'(Physicians of souls)에서 성경적이며 전통적인 칼빈주의와 청교도 개혁주의적인 중생관<sup>94)</sup>은 '순간적 all-at-once 중생'이 아니라 '연속적 elongated 중생'<sup>95)</sup>임을 밝힌다. 피터 마스터스에 따르면, 회심은 '5단계의 연속적인 과정'<sup>96)</sup>으로 발생하는데, 첫 번째 단계인 수태와 네 번째 단계인 칭의와 새출생의 단계는 성령의 순간적인 역사로 발생하지만, 두 번째 단계인 각성과 죄의 확신의 단계와 세 번째 단계인 회개와 믿음의 단계는 상당한 구도와 분투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회심의 각 단계에서, 하나님의 산파들인 전도자들을 사용하셔서 외적 수단인 설교, 개인전도, 혹은 인쇄물 등의 매체와 상담 등을 통해 회심의 전 과정을 주도해 가신다. 이렇게 회심의 각 단계를 알고 있어야 피전도자나 피상담자가 어떤 단계에 있는 사람인지를 살피고 그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회심을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설교자나 전도자는 자신의 특권과 임무, 그리고 역할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93) 양낙홍, 270.

94) 칼빈은 '중생이나 새로운 출생을 다소 넓은 의미로 사용'했고, 그 용어를 '사람이 새로워지는 전체 과정을 나타내는 매우 포괄적인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새로운 생명을 출발케 하는 신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회심(즉, 회개와 믿음)과 성화까지도 포함'시켰습니다.(피터 마스터스, 『영혼의 의사』, 손성은 역.(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4), 116)

95) 이 책에서 그는 회심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실제로 생명이 수태(잉태)에서부터 시작하여 한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의 발전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과 같이 중생도 그러하다고 하였다.(피터 마스터스, 48-49 참조)

96) 그는 회심을 하나님의 외적 수단인 전도를 통해, 자신의 영적 필요와 죄에 대한 깊은 충격과 영적 위험을 지속적으로 지각하게 되는 '영적 수태(conception)'의 단계, 자신의 잃어버린 자로서의 곤경에 처해 있음을 각성하게 되고 죄에 대한 확신을 오래 지속하게 되는 '각성(awakening)과 죄에 대한 확신(conviction)'의 단계, 마침내 실제적인 죄에 대해 사무치는 슬픔을 느끼고 반역적인 삶에서 벗어나 주님의 권위와 통치 아래 항복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구속사역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회개(repentance)와 믿음(faith)'의 단계, 자신이 새로운 출생을 의식하게 되는 단계로서 새로운 본성 new nature을 받게 되고 칭의를 인식하게 되고, 자신이 새로워졌음을 보여 주는 가시적인 증표를 얻게 되는 '칭의(justification)와 새 출생(new birth)'의 단계, 자기가 성령의 인 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구원의 확신(assurance)'의 단계의 총 5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피터 마스터스, 58-67 참조)



“초기 중생(수태)은 일반적으로 순간적인 것이며, 이후에 출산 과정이 따라옵니다. 벌코프의 묘사에 의하면, 중생의 처음단계는 의식할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통해 죽었던 죄인이 생명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죄인은 수동적입니다. 하지만 전체 회심의 과정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초기중생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함에 따라, 회심자는 지적이고 의식적으로 설득되어 자신의 죄를 완전히 깨닫고 회개와 믿음에 이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에만 중생의 완전한 축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벌코프는 두 번째 단계를 ‘새로운 생명이 그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드디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때’라고 부릅니다. 이런 연속적인 중생의 입장을 견지하는 칼빈주의 저자들은, ‘중생은 회심으로 끝난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중생은 일종의 과정입니다. 초기중생이 해성의 머리와 같다면, 해성의 꼬리는 회심에까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초기중생은 회심의 모든 측면들을 한순간에 드러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회심의 모든 것에 이르게 됩니다.”<sup>97)</sup>

이에 반해, ‘순간적 중생관’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였던 존 머리(John Murray)교수가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터 마스터스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순간적 중생관은 중생을 완전한 쇄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죄인을 완전히 회심한 사람으로 바꿔주는 변화가 일순간에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개와 믿음은 의식적인 회심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열매가 됩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존 머리 교수는 이 견해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종교개혁자들, 영국의 청교도들, 대륙의 개혁주의 신자들의 가르침이나, 17세기의 위대한 신앙고백, 19세기 미국 신학자들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과 일치하지 않습니다.”<sup>98)</sup>

“머리 교수는 믿음과 회개가 이미 마음과 생명이 전적으로 변화된 즉각적인 열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지체되는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것도, 추구하면서 씨름하는 기간도 없습니다. 중생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것인데, 한순간에 모든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인간적인 수준에서 말할 때, 설득과 의식적인 반응은 불필요합니다.”<sup>99)</sup>

피터 마스터스는 순간적 중생의 관점을 취하고 있으면 ‘참된 복음을 강력하게 제시하지 못할 것이며, 영혼을 두고 씨름하지 않을 것’<sup>100)</sup>이라고 말한다. 복음전도에 대한 동기부여와 확신을 강하게 줄 수 있는 것은 연속적 중생관이다.

“오직 연속적 중생이라는 관점만이 주님과 사도들, 종교개혁과 부흥 시기의 위대한 설교자들의 설교방식대로 죄인들에게 설득적으로 설교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설득적인 복음의 요청이 서 있을 자리와 목적을 제공해 줍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초기의 중생(수태-잉태)은 지성에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해 주고, 감정을 이끌어 그 사람이 설득적인 호소에 주목하게 해 주며, 그 호소들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고 반응하게 해 줍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남녀의 무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실 때 설교자들이 ‘복음의 참된 도구’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진 설교자들은, 자신들이 설교할 때 성령께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초기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설교자들의 계속적인 권면을 사용하면서 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라는 뒤따르는 과정을 통해 죄인들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중생이 연속적인 것이라는 관점을 갖게 되면, 설교자는 역동적인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과 그것의 효과적인 역할에 대하여 실제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순간적 중생의 관점을 취하는 설교자는 단지 사실만을 진술하면서 마지못해 하는 기계적인 복음설교를 하게 될

97) 피터 마스터스, 116-117.

98) 피터 마스터스, 114.

99) 피터 마스터스, 128-129.

100) 피터 마스터스 113.

확률이 높습니다. 복음을 강조하고 내세울 수는 있겠지만, 청중들의 지성과 감정을 얻기 위해 애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특권을 의식함으로써 자극받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sup>101)</sup>

피터 마스터스는 실제적인 결론으로 다음과 같은 조언을 준다. “첫째, 우리는 실제적인 측면에서 전도설교의 목표를 사람들이 각성과 죄에 대한 확신을 하게 하고 회개와 믿음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자극하고, 도전을 주는데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설교하고 있는가?’를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 피상담자가 어떤 단계에 있는 사람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구도자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으려고 하는 것은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구도자가 복음에 대하여 자발적이며, 개인적이고 참된 반응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감정적인 조작을 통해 믿음을 고백하도록 조장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망치는 것입니다. 셋째, 세 번째 회심단계인 회개와 믿음은 구도자의 능동적인 반응이 요구되는 단계입니다.<sup>102)</sup> 따라서 구도자는 잘못된 생각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나를 회심시키실 것이므로 지금 나는 개인적인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전도설교는 복음의 명령, 훈계, 약속 그리고 권면 등을 풍성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은혜를 구하면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과 마음을 다하여 회개와 믿음과 순종을 해야 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전도설교는 결코 밀어붙이거나, 강압적이거나, 조작하지 않습니다. 다만 탄원하고 설복하며 언제나 인격적이면서 자발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강청합니다.”<sup>103)</sup>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전도를 통해 즉각적으로 회심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익명의 전도자에 의해서 이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주 특별하게 단 번에 회심하는 드문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단번의 복음전도를 통해 회심하는 것은 그리 흔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고, 대부분의 경우는 긴 기간을 통한 분투를 통해 회심하게 된다.

패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도는 오히려 장기간에 걸쳐 인내로 가르치고 교육하는 작업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종들은 그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인간의 삶 속에 적용시키는 일에 충실하도록 힘쓰며, 성령께서 그 메시지를 통하여 그의 방법대로 또한 그의 속도에 맞추어서 사람들을 이끄는 믿음을 갖게 하시도록 그 일은 전적으로 성령께 맡겨야 하는 것이다.”<sup>104)</sup>

우리는 먼저 복음을 전하여 구도자를 확보하고(복음에 반응을 보이는 자들을 중심으로), 회심할 때 까지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치며 상담해줘야 한다. 그리고 회심이 공적으로 확인 되면 세례를 주고 정식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 복음전도와 기도

101) 피터 마스터스, 118-119.

102) 택하신 자를 수태하시고 회심의 전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서는, 설교자가 판단하여 적절한 때에 믿음이나 회개를 요구하여도 ‘올법적 회개’나 ‘사람의 결단으로서의 거짓 믿음’에 빠질 염려가 없다. 피전도자나 전도자가 인위적으로 주도해 가는 회심의 과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수태나 이끄심이 없는 상태에서 인위적인 회심 도모는 거짓 회심자를 양산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심은 전도자(혹은 설교자)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죄인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전체의 과정을 확인해 가면서 각 단계에 걸 맞는 산파의 역할을 지혜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3) 피터 마스터스, 69.

104) 조엘 비키, 122.

기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장 중요한 전도 방법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지 않으시면 진정한 회심이 일어날 수 없다. 기도는 죽은 죄인을 다시 살리시는 수단이다...죄인들은 전적으로 무능력하며, 우리 역시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 이 점을 기억해야만 기도할 수 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행위다.<sup>105)</sup>

복음전도가 가시적인 결과(찰스 피니나 신복음주의자들은 격렬한 감정이나 육체적인 현상, 혹은 결심이나 결단 등을 회심과 동일시하였다)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정의될 때, 결과를 이끌어내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을 중시하게 된다. 그러나 회심 자를 얻는 복음전도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속한 것으로 정의될 때, 우리는 죄인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에 전력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스스로의 무력함과 의존 상태를 겸손히 인정하는 행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세상을 통제하는 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식한다. 우리는 스스로의 필요를 채울 능력이 없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바라고 구하는 온갖 선한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물며 일용할 양식조차 하나님의 선물일진대 영적 은혜는 더욱더 그러하다.”<sup>106)</sup>

기도는 우리의 무력함과 필요를 고백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달라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에 호소하는 것을 뜻한다....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그분을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새롭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다.<sup>107)</sup>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능력 있는 복음전도는 불가능하며, 복음전도의 목표인 회심을 얻어낼 수 없다.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전도를 주도하시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행4:31)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다(눅11:13, 행2:38, 5:32, 11:17). 누가는 이와 같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이라고 보았으며 이를 교회의 최고 원천으로 보았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설득력 있는 말이 나오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복음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름답고 좋은 열매들을 수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기도를 통해서만이 그러한 능력과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눅3:21, 행1:14, 4:24-31).”<sup>108)</sup>

조엘 비키는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청교도들은 모든 수고를 기도로 가득 채웠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골방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위대한 설교자들이었던 것은 오로지 그들이 설교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위하여, 하나님과 항상 씨름을 했던 위대한 간구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리처드 박스터는 말하기를 ‘우리의 사역에서 기도가 설교와 함께 계속되어야 한다. 교인들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설교자는 진정 마음을 다하여 그들에게 설교할 수가 없다. 교인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이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로버트 트레일(Robert Trail)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목회자들 가운데 은사와 능력이 보잘 것 없는 데도 오히려 능력이 훨씬 뛰어난 분들보다도 사역에 더 성공을 거두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105) 월 메츠거, 248-249.

106) 제임스 패커, 『복음전도란 무엇인가』, 19.

107) 제임스 패커, 『복음전도란 무엇인가』, 176-177.

108) 데이비스 F. 웰스, 『전도자 하나님』, 유용국 역,(서울: 서로사랑, 2004), 82-83.

설교를 더 잘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이다. 목회자의 서재에서 많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좋은 설교들이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sup>109)</sup>

전도와 기도는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복음전도는 진리에 근거하지도 않고, 축복을 받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의 지식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만이 우리의 전도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곳에는 성령을 보내지 않으신다. 오늘날의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전도의 방법을 혁신하기에 분주하다. 좋은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혁신하시어 우리에게 복음전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새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 어떤 방법도 결실을 거두기 어렵다....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믿는 신앙은 전도와 기도를 하나 되게 하라고 가르친다. 이 신앙은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하고 자신 있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태도로 끈기 있게 기도하게 만든다.<sup>110)</sup>

## 5. 결론 : 복음전도와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16:18)

“19세기 이전에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알고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삶의 증거를 보여 주는 사람만을 회심자로 인정했다.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누구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회심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찰스 피니가 이것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 대중 집회에 참석하여 인도자의 권면을 따라 적극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면, 바로 회심자로 인정한 것이다. 이제 현대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예수 믿겠다고 고백만 하면 회심한 사람으로 대우한다. 세례만 받으면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직분도 쉽게 받는다. 회심을 조작할 것도 없이 아예 교회 오는 모든 사람을 회심자로 여기는 현상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이다.”<sup>111)</sup>

“오늘날의 복음전도는 많은 점에서 혼란스러워했던 제자들의 상태와 비슷하다. 사람들은 기독교의 성공이 군중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인기를 누리느냐에 달려 있다는 통념에 지배될 때가 많다. 이런 통념은 복음이 적절성을 지니려면 최근의 문화적 흐름에 적합하게 기독교를 개조해야 한다는 의식을 부추긴다.”<sup>112)</sup>

복음전도의 왜곡은 신학적 분별력이 없이,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이 원하는 때에, 예측 가능한 반응이나 결과를 확보하려는 사람의 탐심으로부터 기인한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무시되고, 교리는 타협되며 하나님의 영광은 탈취된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믿거나 고려하지 않고, 구원이 인간의 결단과 선택에 달려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복음전도의 결과가 특별한 수단이나 방법, 혹은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믿는다.

그러나 참된 회심과 부흥의 뚜렷한 특징은 전도(복음을 전함)와 기도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적인 방편을 통해 예기치 못하게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방편들을 꾸준히 사용한다 하더라도 항상 같은 기계적인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때에, 불특정의 사람들을 불러내신다. 부흥이나 회심은 사람이 기획하거나 조작한 특정한 수단에 의해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작스럽게 온다.

우리들에게 복음전도를 명령하신 하나님은 복음전도의 결과와 목표를 이루신다. 복음전도

109) 조엘 비키, 127~128.

110) 제임스 패커, 『복음전도란 무엇인가』, 180-181.

111) 박순용, 164.

112) 존 맥아더+그레이스 커뮤니티교회 선교팀, 『담대한 복음전도』, 14-15.

는 우리의 책임이지만, 회심은 하나님만의 영역으로 남겨두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도를 할 때에, 성경의 충분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교세를 확충하거나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리적인 타협을 하거나, 어떠한 수단으로 즉각적인 결단을 유도하거나 영접기도를 드리도록 요구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또한 그러한 외적 행위들을 회심(믿음)과 동일시하거나,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여기도록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따라 회심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만의 대권임을 가르쳐야 한다. 그분만의 주권과 능력에 속한 일을 우리의 손으로 가져오려는 월권행위는, 사람을 기만하여 거짓 회심자를 양산하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분만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의 업적으로 가로채는 행위다. 그리고 진실로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로 대거 유입시키는 외형적인 성공은, 오히려 지역 교회의 영적 순결을 파괴하며 급속하게 세속화시키고 약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복음전도의 목적은 대중적인 동의를 확보하고 교세확장과 외적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선택하신 자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의 몸, 즉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언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 그 약속과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셨으며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분은 자신의 몸인 교회에게 자신의 복음을 증거 하는 책임을 맡기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복음을 통해 잉태하시고 거둬나도록 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다. 그리고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신다(엡1:6). 복음전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러므로 복음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전도의 수단이자 목적이다. 교회의 소임은 다만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즉각적인 반응이나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씨를 뿌릴 뿐 자라게 하시며 위로부터 거둬나게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회심을 주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를 지켜보며 적절한 산파로서의 역할을 지혜롭게 감당해야 한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막4:26-29)